

실직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정은석
(서울대학교)

강상경*
(서울대학교)

기존연구는 자존감 수준이 성별과 취업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직업상황변화와 자존감의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가 거의 없어서, 취업자가 실직을 당했을 때 자존감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또한 실직에 따른 자존감 변화가 성별에 따라서 다른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이러한 한계를 염두에 두고 본 연구는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를 대상으로 (1) 자존감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2) 실직자와 취업유지자의 자존감 차이가 있는지, (3) 실직에 따른 자존감 차이가 성별에 따라 상이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 데이터는 한국복지패널 7차 년도와 8차 년도 자료이고, 연구대상은 7차 년도 기준으로 취업중인 경제활동인구 5,387명(남: 3,044명, 여: 2,343명)이다. 분석은 8차 년도 자존감을 종속변수로, 7차 년도 자존감을 통제된 상태에서 성별, 실직 여부, 성별과 실직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는 회귀분석을 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취업자 사이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자존감이 높았고, (2) 실직자가 취업유지자에 비해 자존감이 낮았으며, (3) 남성 실직 경험자의 자존감이 여성 실직 경험자의 자존감보다 유의미하게 낮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결과의 함의 및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서 논의 하였다.

주요용어: 자아존중감, 실직, 성별차이, 사회적 비교이론, 성별 역할

* 교신저자: 강상경, 서울대학교(skahng@snu.ac.kr)

■ 투고일: 2015.1.31 ■ 수정일: 2015.3.16 ■ 게재확정일: 2015.3.26

I. 서론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경제성장 속도의 둔화로 연공서열제와 종신고용으로 대표되는 고용 안정성 기반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실업 및 실직¹⁾이 증가했다(전준희, 2014). 고용불안으로 인한 실업률 및 체감실업률의 상승(기획재정부, 2014)으로 실직은 더 이상 특정한 사람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생애 중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이 되었다. 직업은 사회적 지위와 관계망을 제공하기 때문에(유홍준·김월화, 2006), 실직은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직업을 통해서 담보할 수 있었던 사회적 지위와 관계망의 상실을 의미한다. 따라서 실직은 우울의 증가, 사회적 관계망의 축소 및 소외 경험 등의 부정적인 심리사회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Murphy & Athanasou, 1999). 개인적으로 실직 상황의 지속은 개별적 차원의 소득 저하 및 심리적 복지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사회적 차원에서 실직의 지속은 생산가능인구가 유희화(遊休化)됨을 의미하며 이는 거시경제측면의 손실일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나 노령연금, 공공부조와 같은 복지지출로 이어져 국가의 재정을 압박하는 하나의 요인이다(김가을, 2006).

실직이 초래하는 개인 및 사회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실직에 대한 정책적인 접근에서 재취업을 위한 심리사회적 준비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채 직업상담 및 직업훈련을 통한 재취업 및 소득회복에 집중되어 온 경향이 있다. 이에 실직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몇몇 연구에서 심리적 측면에서 상담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었고(김승권, 1999; 백용매, 1999), 직업상담의 개선 필요성이 거론되기도 하였다(이상록, 2001). 그러나 실직의 심리적인 측면에 대한 정책적 접근은 여전히 부각되지 않고 있으며, 실직자를 대상으로 한 심리상담의 효과성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성한, 2009).

실직과 관련한 심리적 상태에 대한 실천적 함의를 위해서는 실직경험의 심리적 영향이 어떠한지에 대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실증적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실직이 심리상태에 영향을 주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실직은 직업 활동 중단으로 인한 소득단절이나 사회적 관계망의 변화를 통해서 심리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취업자에서 실직자로의 자아정체성의 변화 및 상징적 상호작용과정²⁾이 당사자의 자아 및 심리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Gould et al., 1972). 즉,

1) '실업'은 일자리를 얻으려는 의도는 있지만 얻지 못하거나 취업상태에서 일자리를 잃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고, '실직'은 취업 중에 일자리를 잃는 것을 말하는데, 본 연구의 관심은 '실직'이다.

실직자는 '실직'에 대해 사회적으로 형성된 부정적 인지를 자신의 정체성과 연결시키고, 실직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 인지를 실직자 자신의 정체성으로 내면화 하면서 부정적 심리상태를 경험하게 된다(Cooley, 1902; Mead, 1934).

Cooley(1902)와 Mead(1934)의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이나 거울에 비친 자아이론에 따르면, 실직자는 사회적으로 형성된 '실직'에 대한 도식(schema)을 받아들이면서 자아상을 형성하게 되고, 자아상이 부정적일 때는 심리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된다. 사회적 도식은 성장과정에서 사회화 경험에 따라 다르게 습득할 수 있다(Cooley, 1902; Mead, 1934). 또한 생물학적인 성(sex)의 차이는 크지 않을 수 있으나, 성별에 따른 사회화 과정의 차이로 인한 사회문화적인 성(gender)의 차이는 지속적 관심을 받아왔다(배은경, 2004). 따라서 직업과 관련해서도 취업이나 실직의 의미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즉, 전통적인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남성의 취업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 반면, 여성의 취업은 선택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남성의 실업은 가장이나 주부양자로서의 정체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으나 여성의 실업은 그 영향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다(함인희, 2012). 최근 직업을 가지는 것과 관련하여 남녀 역할에 대한 인식은 많이 변화하였으나, 출산이나 양육의 영향 및 전통적인 가치관의 영향으로 남성의 취업은 당연시 되는 반면 여성의 취업은 선택적이다. 또한 실직에 대한 인식에서 여성의 실직은 남성의 실직에 비해 사회적 허용도가 높다(Ensminger & Celentano, 1990). 이러한 남녀 간 실직 의미의 차이를 고려할 때, 실직이 남성의 자아존중감을 저해하는 정도가 여성의 자아존중감을 저해하는 정도보다 클 것으로 기대된다. 실직의 성공적 해결을 위해서 적절한 심리상태의 기본 전제인 자아존중감에 대한 실직의 영향 및 남녀 간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실직에 따른 심리적 영향이 남녀 간에 서로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직의 자아존중감에 주는 영향이 어떠한지 또는 이 영향이 남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없다.

이러한 기존연구의 한계를 고려할 때, 실직에 대한 실질적인 심리적 개입의 함의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실직 경험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고, 실직의 영향이 남녀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서 대표성 있는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취업상태에서 실직 상태로 변할 때, 실직 집단이 겪는 변화를 취업상태 중인 집단과 비교하여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대표성 있는 한국복지패널 7차 년도(2012년)와 8차 년도(2013년) 자료를 활용하여 7차

년도 자아존중감을 통제한 상태에서 7차 년도 취업자 중에서 8차 년도에 실직을 경험한 사람의 8차 년도 자존감이 어떠한지 및 이러한 실직의 영향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에 답하고자 한다.

- 1) 취업자의 실직경험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 2) 취업자의 자아존중감은 성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가?
- 3) 취업자의 실직경험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자아존중감

자아(self)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로 정의(Rosenberg, 1965)되는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심리 정서적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시에, 당사자의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심리정서적인 특성과 관련해서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Pelham & Swann, 1989), 삶의 만족도가 높으며(Myers & Diener, 1995), 불안이나 절망감,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Brockner, 1984; Tennen & Herzberger, 1987; Crocker et al., 1994). 사회적 상호작용의 측면에서 낮은 자아존중감은 비행이나 사회적 문제의 원인이 되고, 반대로 자아존중감이 높을 때 개인적인 성과가 높아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해결되는데 도움이 된다(Crocker & Wolfe, 2001). 이러한 자아존중감의 심리 사회적인 영향 때문에, 자아존중감은 인간의 기본 욕구의 하나로 강조되어 왔다(Maslow, 1987).

자아존중감에 대한 이와 같은 강조는 자아존중감이 우울의 결과라는 반박을 받기도 하였으나(Shahar & Davidson, 2003), 현재는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우울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준다는 상호순환적 모델(Orth et al., 2008)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러한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순환성은 실증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김혜미, 2014).

자아존중감이 정신건강과 관련된 우울에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받는 것은 사회적 자아(self)가 가진 반성적 의식(Reflexive conscious), 대인관계적 존재(Interpersonal Being), 집행 기능(Executive Function)이란 특성을 반영하기 때문이다(Baumeister, 1998). 즉, 자아는 반성적 의식을 통해 자신에 대한 상을 가지며, 대인관계적 존재로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 집행기능을 통해 행동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후 자신이 한 행동과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미친 영향을 바탕으로 반성적 의식을 통해 자신에 대한 상을 가지게 되는 순환적인 과정을 겪게 된다. 이로 인해 자아는 심리적이자 사회적인 요소이며, 이런 자아에 대한 태도인 자아존중감 역시 개인의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고,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된다(Michel & Morf, 2003).

자아존중감은 어린 시절에 형성되어 상당히 안정적인 발달 산물이 된다고 여겨지기도 하지만(Mruk, 2006), 삶의 과정에 있어서 큰 사건이나 중대한 도전을 받는 경우에 변화할 수 있다(Robins & Trzesniewski, 2005). 성인기의 취업이나 취업자의 실직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성인의 삶에 있어 획기적 사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취업자가 실직을 경험할 때, 자아존중감이 변화할 수 있다(Kelvin & Jarret, 2011).

2. 실직

Jahoda(1982)는 직업을 통해 개인이 두 가지 종류의 이득을 얻는다고 보았다. 명시적인 이득은 소득으로 재정적인 이득이며, 잠재적인 이득은 직업을 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형성되는 시간 구조, 사회적 접촉, 공동의 목적, 지위, 그리고 직업 활동으로부터 형성되는 심리사회적인 이득이다. 직업의 의미가 재정적인 것과 심리적인 것이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직업을 잃게 되는 실직은 직업이 주는 재정적인 이득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이득을 빼앗아 간다. 이러한 Jahoda(1982)의 ‘잠재적 박탈 모델(Latent Deprivation Model)’에 의하면 실직은 개인의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심리적 측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Creed & Macintyre, 2001).

실직은 경제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단의 상실이며, 직업에서 오는 사회적 지위의 상실을 의미한다. 직업으로부터 얻는 사회적 지위란 직장 내에서의 지위도 있겠지만, 가족 내에서 취업자로서 자신이 수행해 오던 부양자로서의 역할 또한 포함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실직은 한 사람의 사회적 지위상실과 사회생활의 위축뿐 아니라 가정에서의 지위와

역할의 상실을 의미한다(Gould et al., 1972; 함인희, 2012).

정리하면 실직의 영향은 ‘경제적 이득의 박탈’에서 그치지 않는다. 실업 경험에 대한 기존 연구에 따르면 직업이 없는 개인은 자신의 삶에 대해 지루하고, 외롭고, 우울하다고 묘사하며, 무슨 일을 할 의욕이 점점 줄어든다고 보고한다(Tiggemann & Winefield, 1984). 실직으로 인한 이러한 부정적 정서의 경험이나 의욕의 저하는, 실직자 자신이 직업이 없는 자신의 삶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하여 결과적으로 자아존중감 등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Shamir, 1986; Murphy & Athanasou, 1999; Ganley, 2002).

3. 실직과 자아존중감

실직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변화는 실직을 경험한 사람이 처하게 되는 상황과 이 때 자기 자신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는가와 연관이 있다. 실직자들은 그들이 ‘어떤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실에 의해 규정되기 때문에(Kelvin & Jarret, 2011), 사회적으로 형성된 ‘실직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지적 도식을 따르게 된다. 결국 실직자는 실직을 경험한 자신을 게으른 혹은 의존적인 자로 여기게 된다(McFadyen, 1995).

실직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변화를 설명하는 이론에는 사회적 비교 이론(Social Comparison Theory)이 있다. 사회적 비교란 개인이 자신의 행위 혹은 업적을 그 자체가 지닌 절대적인 가치로 측정하기보다는 다른 상황이나 사람들과의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 평가하는 것을 뜻한다(Festinger, 1954). 인간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자기 자신과 (intrapersonal), 다른 사람과(interpersonal), 내집단 구성원과(intragroup), 외집단 구성원과(intergroup) 비교를 하게 된다(Sheeran et al., 1995). 그리고 이러한 비교의 결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자아존중감이 형성된다(Turner et al., 1987). 선행연구에 따르면 취업자는 현재 자신과 이상적인 자신(ideal self)을 비교하는 반면, 실직자는 현재 자신과 과거 자신을 비교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heeran et al., 1995). 실직 상황을 겪으면서 실직자는 사회적으로 형성된 부정적 도식을 받아들여 현재의 자신과 이전의 취업자이던 자신을 비교하게 되어 자아존중감의 하락을 겪을 수 있다.

4. 자아존중감의 성별차이

성인기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메타 연구에 따르면 전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Kling et al., 1999). 자아존중감 수준에 있어서 성별 차이, 특히 여성이 남성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에 대해 성별에 따른 사회화 과정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구조적으로 남성은 경쟁적이며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여성은 관계 지향적이며 공유하는 역할을 맡도록 되어 있어 성별에 따라 사회경제적 지위의 차이가 나타나며 이에 따른 차이가 자아존중감 수준에 있어서의 차이로 나타나는 것이다(Van Houtte, 2005). 또한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몸무게와 같은 외모 측면에 더 많은 신경을 쓰도록 되어 있어 자신이 설정한 외모 목표에 도달하기가 어려워 자아존중감 수준에 있어서의 차이로 나타나기도 한다(Kling et al., 1999).

여성이 남성에 비해 자아존중감 수준이 낮다는 연구 결과는 직업적 상황을 통제하지 않고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의 결과들이다. 개인이 직업을 가질 때 얻는 경제적 이득과 심리적 이득을 생각할 때(Jahoda, 1982),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는 '생물학적 성(sex)'의 차이이기보다는 '취업'이라는 지위가 성에 따라 다르게 배분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사회문화적 성(gender)'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일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 지위, 정체성, 가치관 등이 유사하여 동질성이 높은 취업자 사이에서도 자아존중감의 성별 차이가 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현재 노동시장에서 남성의 취업에 대한 견해와 여성의 취업에 대한 견해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Ensminger & Celentano, 1990). 남성의 취업은 필수로 여겨지고 여성의 취업은 선택이나 성취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고, 여성이 취직하는 것이 남성이 취직을 하는 것에 비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정진화 외, 2013), 자신에 대한 평가를 내릴 때, 여성의 사회적 비교기준과 남성의 기준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취업자에 한정 지어 자아존중감에 있어서 성별차이를 분석하면 여성과 남성의 자아존중감 차이가 기준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5. 실직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변화에 대한 성별의 조절효과

어떤 사건 혹은 경험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자신 혹은 자아에 대해서 의미(meaning)가 있어야 한다(Mruk, 2006). 이는 '나에게 중요하다'라는 인식 뿐 아니라 '나와 그 경험 사이의 관계에 대한 판단을 포함한다. 실직을 겪게 되면 개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사회적 도식에 따른 '실직자'로 보게 되고, 이는 그들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그 어떤 사람(즉 취업자)이 아니다'라는 사실에 의해 규정된다(McFadyen, 1995). 이러한 규정은 실직자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어떤 사람들(즉 취업자)이 속한 사회구조의 일부가 아니므로 자신들이 사회적으로 통합되지 못하고 소외되었다고 느끼게 된다. 이런 사회적으로 소외된 느낌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원인이자 결과인 자아존중감 저하의 위험 요인이 된다. 직업의 의미가 남성과 여성에게 다를 수 있는 것처럼 남성과 여성에게 있어서 실직의 의미는 서로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성별에 따른 실직의 의미 차이로 인해 실직 시 실직상황에 대한 인지적 해석 및 대응 전략의 차이로 연결될 수 있다. 그리고 결국 자아존중감 차이로 연결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실직경험 상황에서 개인은 주어진 상황에 대한 이해를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여 사회적으로 형성된 실업에 대한 도식을 내면화하게 된다(Kelvin & Jarret, 2011). 이 때 사회적 도식의 내면화는 성별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는 성별에 따른 사회화 과정의 차이로 인해서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이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의 경우, 경제활동 부분에서의 역할 상실은 가정으로 회귀하여 돌봄 역할을 맡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남성의 경우, 경제활동 부분에서의 역할 상실은 자신이 맡은 총제적인 역할의 상실을 의미하게 된다(Ensminger & Celentano, 1990). 성별에 따른 역할 제약의 차이로 인해서 실직이라는 같은 현상이 여성에 비해 남성에게 더 큰 사건으로 다가올 수 있다.

한국의 경우, 가부장제와 남성 부양자모델(male-breadearner)이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남성이 경제적 측면에서 많은 부분을 감당하기를 기대한다(허재홍, 2009). 최근 거시경제 환경의 변화로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있지만 남성이 가정에서 돌봄 역할을 주로 맡는 모습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부정적인 입장이다(박노자, 2009). 따라서 한국에서 실직한 여성은 자신을 실직자로 보기보다는 자신을 돌봄 제공자로서 역할로 정의할 수 있게 되는 반면, 실직을 경험한 남성의 경우 사회적으로 정의된

실직자라는 도식의 영향을 받게 되어 실직 경험으로 인한 자아존중감의 하락을 여성에 비해 더 많이 겪을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6. 기존 연구의 한계

실직의 심리적 영향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실직에 대한 심리적 측면의 연구들이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국내 연구에서는 취업 집단 내에서 종사상 차이에 따른 정신건강의 차이를 비교한 연구(최수찬·박해웅, 2005), 실업집단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박능후·최민정, 2012), 장애인, 청년 등 특정 집단의 고용지위에 따른 정신건강 차이를 살펴본 연구(김민정·조근호, 2009; 조정아, 2010; 김성희 외, 2011) 등이 있다. 또한 정규·비정규·실업 간 고용상태의 변화가 우울증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연구나(박세홍 외, 2009), 실업집단과 비실업집단을 모두 포괄하여 종사상지위와 우울 사이의 횡단면적인 관계를 살핀 연구도 있다(송이은·김진영, 2012).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취업자와 실업자 집단이 실직이라는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동일한 집단이었는지 여부를 통제하지 못한 횡단연구라는 한계가 존재한다.

해외 연구의 경우,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자전적 이야기(Gould et al., 1972), 실업이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례연구(Briar, 1977) 등이 존재한다. 이러한 연구는 남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횡단자료를 사용해서 남성과 여성, 그리고 취업집단과 실직집단을 대상으로 남성 실업자의 정신 건강이 더 악화되어 있음을 보고하는 연구가 있지만(Ensminger & Celentano, 1990; Sheeran et al., 1955), 편의표집 한 횡단자료의 사용으로 인과관계 추정 및 일반화의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로 아직까지 취업자 사이에서 실직과 성별이 자아존중감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표성 있는 종단데이터인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취업자의 실직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취업자의 자아존중감이 성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 취업자의 실직경험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 수집한 한국복지패널 7차(2012년), 8차 년도(2013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은 서울을 포함한 7개 광역시와 제주도를 포함한 9개 도에 거주하는 7,072가구의 가구원 14,469명이 참석한 전국적인 대표성을 지닌 종단적 조사이다. 한국복지패널은 2006년에 국민실태조사에 참여한 30,000가구를 2단계 층화집락 추출을 통해 추출한 후, 소득계층별로 층화하여 저소득층 가구와 일반가구를 각각 3,500가구씩 표본으로 선정하여 1차 년도 데이터를 구축하였으며 현재 2014년 9차년도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고 8차 년도 데이터까지 공개되어 있다. 본 연구는 실직에 따라 자아존중감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파악하기 위해 경제활동인구(15~64세²⁾) 중 7차 조사 시점에 취업상태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최종 분석대상의 수는 5,387명이다.

2. 주요 변수 및 측정도구

가) 독립변수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는 실직 여부이다. 7차 조사 시점에 취업 혹은 고용주라고 응답하였으나 8차 조사 시점에는 미취업 상태라고 답한 경우, 실직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실직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실직한 경우, 자아존중감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직한 경우 '1'로, 취업을 유지하는 경우 '0'으로 코딩하였다.

2) 생산가능인구에 속한 경제활동인구의 연령대는 정의상 15~65세이나 본 연구의 특성상 1년 후 '실직'의 영향을 파악하므로 1년 뒤 정년을 맞이하여 '퇴직'을 경험하게 될 65세 인구는 분석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음.

나) 종속변수

한국복지패널에서는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1965)의 전반적 자아 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Rosenberg 척도에서 자아존중감은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 만큼 가치있는 사람이다, 내가 좋은 자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 '남들이 하는 만큼 뭐든지 할 수 있다,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나 자신에 만족한다의 긍정적인 5문항과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나는 자랑스러워 할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때때로 나 자신이 쓸데없는 존재라고 느낀다, '때때로 유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하고 바란다'의 부정적인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거의 그렇지 않다, 3=그런 편이다, 4=항상 그렇다)로 측정되었으며, 부정적 문항은 역문항으로 처리하여 전체 10문항의 평균을 최종적인 자아존중감으로 이용하였다.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7차 조사에서 .711, 8차 조사에서 .834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 조절변수

본 연구는 실적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정도가 조절변수인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성별의 경우 여성에 비해 남성이 어떠한지 확인하기 위해 여성을 '0', 남성을 '1'로 코딩하였다.

라) 통제변수

통제변수로는 자아존중감과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전시기(즉 7차) 자아존중감, 이전시기 우울수준, 연령, 교육수준, 종교 여부, 혼인 상태, 경상소득을 사용하였다. 이전 시기 자아존중감은 종속변수를 측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측정하며, 이전시기 우울수준은 표준화된 척도인 우울지수(CESD-11)을 이용하였다. 우울지수는 각 하위 문항의 응답을 0, 1, 2, 3으로 재점수화하고, 하위문항 2와 7번은 역점수 처리하여 우울 총점을 계산한 후, 우울총점에 20/11을 곱하여 변수의 평균과 표준오차를 계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수준이 높으며 계산된 값이 16보다 높으면 우울증을 의심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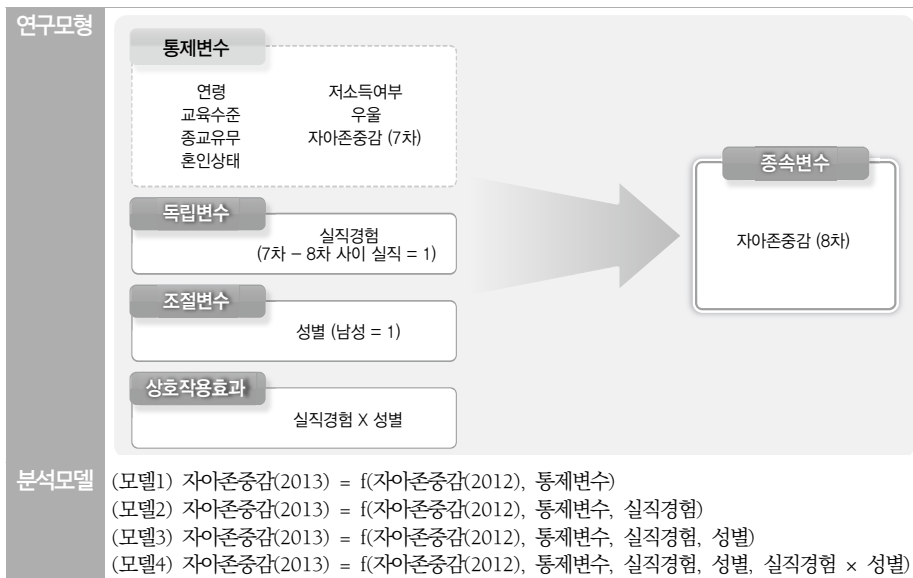
수 있다. 연령은 자기보고식으로 기입된 연속변수이며, 교육수준은 무학에서 대학원 박사학위까지 자기보고식으로 기입된 서열변수이다. 종교 여부는 종교가 있는 경우를 '1', 없는 경우를 '0'으로 하였고, 혼인 상태는 배우자와 동거하는 경우를 '1', 이혼, 별거, 사별, 미혼 등의 이유로 현재 배우자가 없거나 동거하지 않는 경우를 '0'의 값을 부여 하였다. 소득 수준은 자기보고식으로 조사된 경상소득을 이용하였다. 경상소득은 가구가 근로제공의 대가로 받은 근로소득, 자영업으로부터의 사업소득, 자산으로부터 이자, 배당금 등의 재산소득, 정부, 타기구, 비영리 단체 등으로부터 이전되는 이전소득 등 경성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한다. 분석에는 분포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규분포를 획득하기 위해 루트(square root)를 씌워 변형한 값을 투입하였다.

3. 연구모형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그림 1]의 연구모형에 나타난 것처럼, 관련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취업자의 실직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취업자의 자아존중감이 성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 취업자의 실직경험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다. 분석은 SPSS18을 이용하여 기술통계와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특성 파악은 기술 통계 분석 기법을 활용해 살펴본다. 이후 세 가지 연구문제에 답하기 위해서는 다중회귀분석 방법을 활용한다. 우선 첫 번째 연구문제인 실업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한지 확인하기 위해 통제변수만을 포함한 (모델1)과 실직경험 여부가 포함된 (모델2)를 비교한다. 두 번째 연구질문인 취업자 사이에서 자아존중감이 성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모델3)을 분석 하였다. 세 번째 연구문제인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모델4)을 분석하였다. 상호작용항이 투입된 단계에서 R^2 변화량이 유의미하다면 상호작용효과가 존재하는지 확인하였다(Aiken & West, 1991). 이후 상호작용효과에 대한 검증 및 해석은 Aiken & West(1991)가 제안한 방법을 이용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및 분석모델



IV. 연구결과

1. 분석대상의 특성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의 결과는 <표 1>에 정리되어 있다. 분석 대상의 전체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전체 5387명 중 여성이 2343명(43.3%), 남성이 3055명(56.7%)이었으며, 평균연령은 약 44 세로 파악되었다. 종교가 있는 사람들이 약 과반수를 차지하였고, 70% 가량의 참여자가 혼인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상자 중에서 2012년에서 2013년 사이에 실직을 경험한 사람은 428명으로 약 8%가량 되었다.

<표 1>에 정리된 것처럼 독립변수인 실직 여부의 경우 남성과 여성 사이의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실직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중 종교 여부와 혼인 여부는 모두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자 집단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기혼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과 학력수준, 우울수준, 경상소득에 있어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성이 여성에 비해 연령과 학력수준, 경상소득이 높고, 우울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시기 자아존중감은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주요 변수의 평균(또는 %)과 표준편차

| 변수명 | 평균(표준편차) | | 총(N=5,387) | | | |
|-----------------|---------------|---------------|---------------|----------------|---------------|---------|
| | 남 (N=3044) | 여 (N=2343) | 평균 (표준편차) | 왜도 (표준오차) | 첨도 (표준오차) | t값 |
| W8 자아존중감 | 3.16(0.37) | 3.15(0.36) | 3.16(0.36) | -0.510(0.033) | 3.430(0.067) | -6.78 |
| W7 자아존중감 | 3.16(0.35) | 3.15(0.36) | 3.15(0.35) | -0.505(0.033) | 3.499(0.067) | -1.510 |
| 연령 | 44.57(10.22) | 43.00(11.82) | 43.88(10.97) | -0.089(0.033) | -0.481(0.067) | -5.109* |
| 우울수준 | 8.98(5.50) | 10.83(7.20) | 9.79(6.36) | 2.104(0.033) | 8.319(0.067) | 10.312* |
| 학력수준 | 5.55(1.29) | 5.31(1.38) | 5.45(1.33) | -0.071(0.033) | -0.481(0.067) | -6.466* |
| 경상소득 | 99.55(15.67) | 98.72(15.99) | 100.80(15.31) | 3.104(0.033) | 5.319(0.067) | -2.847* |
| 종교여부 | 사례수(%) | | 사례수(%) | X ² | | |
| 없음 | 1685(31.3) | 1073(19.9) | 2758(51.2) | 48.416*** | | |
| 있음 | 1359(25.2) | 1270(23.6) | 2629(48.8) | | | |
| 혼인상태 | | | | | | |
| 미혼, 이혼, 별거 등 | 713(13.2) | 880(16.3) | 1593(29.6) | 127.021*** | | |
| 기혼 | 2331(43.3) | 1463(27.2) | 3794(70.4) | | | |
| 실직여부 | | | | | | |
| 비실직 | 2888(53.6) | 2071(38.4) | 4958(92.1) | 76.110*** | | |
| 실직 | 156(2.9) | 272(5.0) | 428(7.9) | | | |
| 총 | 3055(56.7) | 2343(43.3) | | | | |

* $p < .05$, ** $p < .01$, *** $p < 0.001$

주: %에서 분모는 전체 사례수(N=5,387)

2. 주요변수의 상관관계

다음으로 Pearson 적률상관관계 계수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전체 변수들간 .8을 넘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고, 회귀분석 결과 다중공선성의 지표가 될 수 있는 분산팽창계수(VIF)값이 10이하이며, 공차(tolerance)가 1 미만이므로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였다(Kleinbaum et al., 2013).

표 2.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
| 1 연령 | 1 | | | | | | | | |
| 2 학력 | -.539** | 1 | | | | | | | |
| 3 종교 | .103** | .006 | 1 | | | | | | |
| 4 혼인상태 | .339** | -.046** | .035** | 1 | | | | | |
| 5 경상소득 | .154** | -.241** | -.002 | -.159** | 1 | | | | |
| 6 W7 우울 | .086** | -.191** | -.013 | -.163** | .204** | 1 | | | |
| 7 W7 자존감 | -.170** | .266** | .059** | .103** | -.206** | -.435** | 1 | | |
| 8 성별 | .071** | .088** | -.095** | .154** | -.049** | -.144** | .021 | 1 | |
| 9 실직 | -.058** | -.034* | .044** | -.079** | .050** | .043** | -.046** | -.119** | 1 |
| 10 W8 자존감 | -.147** | .254** | .063** | .106** | -.221** | -.290** | .438** | .009 | -.071** |

* $p < .05$, ** $p < .01$, *** $p < .001$

3. 다중 회귀분석 결과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3>에 정리되어 있다. 먼저 모델1의 결과를 통해 통제변수의 영향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전시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beta = .346, p < .001$), 교육수준이 높을수록($\beta = .085, p < .001$), 경상소득이 높을수록($\beta = .095, p < .001$)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beta = -.050, p < .01$), 우울수준이 높을수록($\beta = -.094, p < .001$)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가 없는 경우에 비해 종교가 있는 경우($\beta = .041, p < .001$), 기혼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beta = .059, p < .001$)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가) 실직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취업자의 실직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이전 시기 자아존중감 수준과 기타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실직 여부를 투입한 모델2는 모형이 적합하였으며, 종속변수의 변량을 23.7% 설명하고, 모델1과 비교했을 때 설명력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209.567, p<.001; \text{Adj.}R^2=.237; \Delta R^2=.002, p<.001$). 실직을 경험한 집단의 경우, 실직을 경험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beta=-.044, p<.001$). 따라서 실직이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실직을 경험한 사람이 자신에 대한 평가를 내릴 때, 실직하기 전 자신과 실직한 후의 자신을 비교하며, 사회적으로 부여된 '실직자'에 대한 부정적인 도식을 받아들여 자신의 가치를 낮게 평가한다는 사회적 비교 이론의 설명과 일치한다.

나)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모델3에서는 통제변수와 실직여부를 투입한 모델2에 성별 변수를 투입하여 7차 시기 취업 집단의 자아존중감 수준이 성별에 따라 다른지 살펴보았다. 모델3의 모형은 적합하였으며, 종속변수의 변량을 23.7% 설명하고, 모델2와 비교했을 때 설명력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187.122, p<.001; \text{Adj.}R^2=.237; \Delta R^2=.001, p<.001$). 분석결과, 7차년도 자존감과 관련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지난 1년동안 남성의 자아존중감이 여성에 비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beta=-.030, p<.05$). 즉, 전체 집단에서의 분석과 달리 경제활동 상황을 통제하여 취업 중인 남성과 여성의 자아존중감 수준을 비교하면 취업 중인 여성의 자아존중감이 남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성인 집단에서 자아존중감은 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Kling et al., 1999), 분석의 결과는 의외이기는 하지만 분석대상이 취업을 하고 있는 집단이라는 점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즉, 여성이 남성에 비해 취직하기 어려운 현 노동시장의 상황을 고려해볼 때(정진화 외, 2013) '취업 중'이라는 지위에 대한 만족이 여성에게서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실직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의 성별 차이

마지막으로 실직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통제변수와 실직경험을 투입한 모델3과 실직경험과 성별 사이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모델4를 비교하였다. 모델4는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F=170.728$, $p<.001$), 종속변수 전체변량을 약 24% 정도 설명하였으며, 모델 3과 비교하여 설명력의 증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Adj.R^2=.240$; $\Delta R^2=.003$, $p<.001$). 모델2와 모델3에서 살펴봤던 실직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저하와 성별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게 된 반면, 실직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65$, $p<.001$).

구체적으로 그림 2의 실업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의 성별 차이 그래프에 나타난 것처럼, 실업이라는 생애사건이 발생했을 때 남성이 여성에 비해 자아존중감의 하락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실직을 경험할 때, 여성은 가정으로 돌아가 돌봄제공자로서 자신을 어느 정도 재정의할 수 있지만 남성은 성별역할의 제약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정의된 실직자라는 도식의 영향을 받아 자아존중감 수준의 하락이 여성에 비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 자아존중감(W8)에 대한 회귀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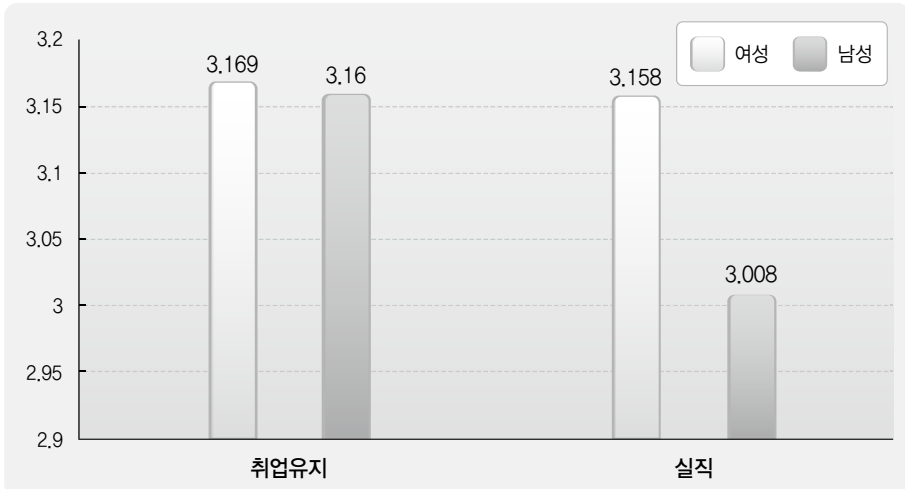
(N=5387)

| 변수 | 모델1 β (SE) | 모델2 β (SE) | 모델3 β (SE) | 모델4 β (SE) |
|-------------------------|------------------|------------------|------------------|------------------|
| 상수 | 1.790(.063)*** | 1.813(.063)*** | 1.823(.063)*** | 1.819(.063)*** |
| 통제 변수 | | | | |
| W7 자아존중감 | .336(.014)*** | .335(.014)*** | .333(.014)*** | .332(.014)*** |
| 연령 | -.050(.001)** | -.054(.001)** | -.051(.001)** | -.050(.001)** |
| 교육수준 | .085(.004)*** | .082(.004)*** | .087(.004)*** | .087(.004)*** |
| 우울수준 | -.094(.001)*** | -.093(.001)*** | -.098(.001)*** | -.098(.001)*** |
| 종교 여부(있음=1) | .041(.009)** | .043(.009)*** | .040(.009)** | .041(.009)** |
| 결혼 여부(기혼=1) | .059(.011)*** | .057(.011)*** | .060(.011)*** | .057(.011)*** |
| W7 경상소득 | .095(.000)*** | .094(.000)*** | .093(.000)*** | .094(.000)*** |
| 독립 | | | | |
| 실직 여부(실직=1) | | -.044(.016)*** | -.047(.016)*** | -.007(.021) |
| 성별(남성=1) | | | -.030(.009)* | -.015(.009) |
| 상호 작용 | | | | |
| 실직 여부(실직=1) ×성별(남성=1) | | | | -.065(.033)*** |
| F | 237.030*** | 209.567*** | 187.122*** | 170.728*** |
| Adjusted R ² | .235 | .237 | .237 | .240 |
| ΔR^2 | - | .002*** | .001* | .003*** |

* $p<.05$, ** $p<.01$, *** $p<.001$

주. 상수항은 비표준화 회귀계수값(B)을 사용함

그림 2. 실직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의 성별 차이



주: 통제변수의 경우 회귀식에 평균값을 투입해 자아존중감(W8)의 예측값을 계산함

V. 결론 및 논의

1. 주요 결과 및 함의

본 연구는 실직이 자아존중감에 주는 영향과 취업집단 내에서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확인하고, 실직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국복지패널을 이용하여 이전 시기 취업 상태를 통제한 상태에서, 실직 후 실직 집단과 취업유지 집단의 자아존중감 수준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 두 가지 차이점을 갖는다. 첫째, 우울 중심의 병리학적 관점에서 실직의 영향을 측정하던 방식과 달리 개인의 긍정적인 성과를 예측할 수 있는 자아존중감 측면에서 실직의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실직의 영향이 단순히 경제적 측면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보였다. 둘째, 대표성 있는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종단적 분석을 함으로써 인과관계의 조건 중 선행성을 담보하였다. 또한 실직 집단만을 분석한 선행연구(이상록, 2001)와 달리 통계적 통제를 통해 실직집단과 취업유지집단을 비교하여 실직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직 시 자아존중감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직이 생애사건으로서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며 실직자는 사회적으로 형성된 실직자에 대한 부정적 도식을 받아들인다는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을 뒷받침한다. 또한 실직자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현재의 자신을 과거 취업자로서 알았던 자신과 비교하여 현재 자신의 가치를 이전보다 더 낮게 여긴다는 사회적 비교 이론과도 일치한다.

둘째, 기존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남성의 자아존중감이 여성보다 높다는 것과 상이하게, 여성 취업자의 자아존중감이 남성 취업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이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과라는 점을 고려할 때(Cooley, 1902; Mead, 1934), 우리 사회에서 실직이 여성보다 남성에게 부정적 자아상을 형성하는데 더 강하게 작용한 것의 결과가 아닌가 사료된다. 즉 남성이 취업을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당연시 되는 것이지만, 여성이 취업을 하는 것은 대부분의 여성이 가지지 못한 사회적 역할 및 정체성의 획득인 것이다. 향후 추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본 연구의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직업이 주는 사회적 인식에 대한 성별차이가 취업자들 사이에서의 이러한 자아존중감 수준의 성별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셋째, 실직 경험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남성이 실직을 경험하는 경우 여성이 실직을 경험하는 경우에 비해 자아존중감의 하락이 더 컸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의 의미가 우리사회에서 여성에게 더 긍정적으로 작용했듯이, 실업의 의미는 여성에게 덜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개인이 실직을 겪게 되면 사회적으로 부정적으로 여기는 '실직자로 자신을 정의해야 하는 상황에 빠지는데, 이때 여성은 가정에서의 돌봄 역할을 맡음으로서 회피하는 것이 가능하다(Ensminger & Celentano, 1990). 하지만 남성의 경우 역할 제약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정의된 실직자라는 도식의 영향을 받아 자신을 정부 혹은 가족에게 경제 및 심리적으로 의존하는 존재로 여기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McFadyen, 1995).

본 연구의 결과는 실직 시 정신건강 차원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실천적·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실직 경험은 단순히 경제적 차원에서의 곤란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의 하락과 관련된다. 자아존중감의 하락은 개인의 내적 자원이 감소함을 의미하며 개인적으로는 실직 후 적응, 재취업에의 어려움으로 연결될 수 있다. 실직 후 부적응은 사회적

으로 생산가능인구의 경제활동 복귀가 줄어드는 부정적인 결과와 연결된다. 다시 말해, 실직으로 인해 자아존중감의 하락을 겪은 개인은 이후 실직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구직 행위나 재훈련 등의 과정에 있어서 소기의 성과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이 실직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인 취업상담소나 직업훈련 기관에서는 효과적인 심리상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며, 특히 개입 시 자아존중감 측면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고려는 창의성을 강조하는 시장의 흐름에 따라 공급자 중심에서 실직자의 선택권과 책무성을 강조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하는 직업훈련의 기초(장흥근·주민규, 2012)하에서 더욱 필요하다. 실직자의 선택권과 책무성을 강조하는 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실직자의 심리적 상태가 선택을 위한 적절한 수준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는 사회현상의 연구에 있어서 성인지적 관점(gender perspective)이 필요하다는 이론적 함의를 제공한다. 실직이라는 사건이 성별에 따라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달랐으며, 현대사회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특정 생애사건에 대해서 취약한 측면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성별 역할의 제약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성별 역할이 어린 시절 사회화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는 점에서 실직 외에도 여러 생애 사건에 대한 반응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2. 한계 및 제언

본 연구는 실직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전체 집단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 분석을 실직 경험 자체에 집중하였다. 이에 따른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종사상 지위에 따른 정신건강 수준의 차이에 대한 연구는 ‘일을 하고 있다, 하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란 측면에 있어서도 개인이 갖는 자아상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실직 자체에만 집중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종사상 지위에 따른 차이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실직이 발생하기까지 존재하는 여러 원인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았다. 즉, 실직은 개인이 결정하여 발생할 수도 있고 주변 환경의 영향으로 발생할 수도 있으나 분석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실직이 자발적이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성역할에 대한 인식은 어느 시기 혹은 어떤 사회에서 사회화를 겪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고려하지 않았다. 특히 나이가 적은 세대는 나이가 많은 세대에 비해 성역할에 대해 유연하게 인식하여 성별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연령대별로 실직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 그 영향력은 어떠한지 등을 살펴봄으로서 성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는지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1년 사이의 변화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 하에 분석을 진행했다. 좀 더 긴 시간을 두고 종사상 지위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면 현대사회에서 실직뿐만 아니라 ‘일’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파악해볼 수 있을 것이다.

정은석은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학사학위를 받고, 동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현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이다. 관심분야는 정신건강 증진서비스이며 현재 생애 사건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다. (E-mail: jes89@snu.ac.kr)

강상경은 미시간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과 심리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로는 건강 및 정신장애 서비스이며 현재 생애주기적 건강·정신건강 예측요인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다. (E-mail: skahng@snu.ac.kr)

참고문헌

- 기획재정부(2014), 11월 고용동향
- 김가을(2006). 비고용인구의 노동력상태 이행 역동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노동정책연구*, 6(1), pp.1-37.
- 김민정, 조궁호(2009). 취업준비생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진로태도 성숙도가 무망감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4), pp.47-62.
- 김성한(2009). 실직자 재취업에 미치는 고용지원서비스 효과 분석. *사회복지정책*, 36(4), pp.441-461.
- 김성희, 이숙현, 조운주(2011). 청년 실업자의 실업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ABC-X 모델의 개념적 적용.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6(1), pp.19-43.
- 김승권(1999). 실업자의 심리상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분석. *보건사회연구*, 19(2), pp.3-34.
- 김혜미(2014). 한국 성인의 우울과 자아존중감의 종단적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인지취약 모델과 상처모델 검증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5(2), pp.233-261.
- 박노자(2009). *씩씩한 남자 만들기*. 서울: 푸른역사.
- 박능후, 최민정(2012). 실망실업자의 특성과 복지욕구 분석. *사회보장연구*, 28(4), pp.129-155.
- 박세홍, 김창엽, 신영전(2009). 고용상태 변화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상황과 복지*, 27, pp.79-120.
- 배은경(2004). 사회 분석 범주로서의 '젠더'개념과 페미니스트 문화 연구. *페미니즘 연구*, 4(1), pp.55-100.
- 백용매(1999). 실직자의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예방적 접근. *동서정신과학*, 2(1), pp.94-115.
- 송이은, 김진영(2012). 고용지위와 우울의 관계. *보건사회연구*, 32(1), pp.228-259.
- 유홍준, 김월화(2006). 한국 직업지위 지수. *한국사회학*, 40(6), pp.153-186.
- 이상록(2001). 실직자 구직상담의 효과 분석: 공공취업알선기관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연구*, 17, pp.127-151.
- 장홍근, 주민규(2012). 훈련의 권리, 시장의 늪. *노동정책연구*, 12(4), pp.45-76.
- 전준희(2014). 우울과 자살에 빠진 대한민국. *월간 복지동향*, 188, pp.21-25.

- 정진화, 성효용, 김현숙(2013). 일반논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여성고용 및 성장에 미치는 영향. *여성경제연구*, 10(2), pp.75-103.
- 조정아(2010).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변화가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제2회 장애인고용매년 학술대회 논문집*, pp.363-383.
- 최수찬, 박해웅(2005). 근로자의 사회정서적 문제가 스트레스와 우울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7(4), pp.177-196.
- 함인희(2012). 사회경제적 위기와 중산층 가족의 품위 하락: 가장의 실직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43, pp.531-569.
- 허재홍(2009). 상담일반: 가족주의 가치관이 자기존중감과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0(4), pp.1769-1782.
- Aiken, L. S., West, S. G.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London: Sage.
- Baumeister, R. F. (1998). The self. in Gilbert D. T., Fiske S. T., Lindzey G. (Eds.),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2, New York: McGraw-Hill, pp.680-740.
- Briar, K. H. (1977). *The effect of long-term unemployment on workers and their families*. San Francisco: R & E Research Associates.
- Brockner, J. (1984). Low self-esteem and behavioral plasticity: Some implications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in Wheeler L. (Ed.),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 Beverly Hills, CA: Sage. pp.237-271.
- Cooley, C. H. (1902). *Human Nature and Social Order*. New York: Scribner's.
- Creed, P. A., Macintyre, S. R. (2001). The relative effects of deprivation of the latent and manifest benefits of employment on the well-being of unemployed people.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6(4), pp.324-331
- Crocker, J., Luhtanen, R., Blaine, B., Broadnax, S. (1994). Collective self-esteem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White, Black, and Asian college student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0(5), pp.503-513.
- Crocker, J., Wolfe, C. T. (2001). Contingencies of self-worth. *Psychological review*, 108(3), pp.593-623.
- Ensminger, M. E., Celentano, D. D. (1990). Gender differences in the effect of unemployment on psychological distress. *Social Science & Medicine*, 30(4), pp.469-477.

- Festinger, L. (1954). A theory of social comparison processes. *Human Relations*, 7(2), pp.117-140.
- Ganley, R. (2002). The psychological impact of joblessness. *Australian Social Policy*, 37(3), pp.179-200.
- Gould, T., Kenyon, J., Godwin, F. (1972). *Stories from the dole queue*. UK: Maurice Temple Smith Limited.
- Jahoda, M. (1982). *Employment and unemployment: A social-psychological analysis*, 1,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elvin P., Jarret J. E. (2011). *Unemployment: Its Social Psychological Effect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leinbaum, D., Kupper, L., Nizam, A., Rosenberg, E. (2013). *Applied regression analysis and other multivariable methods*. Boston: Cengage Learning.
- Kling, K. C., Hyde, J. S., Showers, C. J., Buswell, B. N. (1999). Gender differences in self-esteem: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25(4), pp.470-500.
- McFadyen, R. G. (1995). Coping with threatened identities: Unemployed people's self-categorizations. *Current Psychology*, 14(3), pp.233-256.
- Maslow, A. H. (1987). *Motivation and Personality*. New York: Harper and Row.
- Mead, G. H. (1934). *Mind, Self, and Socie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ichel, W., Morf, C. (2003). The self as a psycho-social dynamic processing system: A meta perspective on a century of the self in psychology. (Eds), *Handbook of Self and Identity*. New York: The Guilford Press. pp.15-43.
- Mruk C. J. (2006). *Self-Esteem Research, Theory, and Practice: Toward a Positive Psychology of Self-Esteem*, (3rd ed.). Springer Publishing Company; New York.
- Murphy, G. C., Athanasou, J. A. (1999). The effect of unemployment on mental health. *Journal of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72(1), pp.83-99.
- Myers, D. G., Diener, E. (1995). Who is happy?. *Psychological Science*, 6, pp.10-19.
- Orth, U., Robins, R. W., Roberts, B. W. (2008). Low self-esteem prospectively predicts depression in adolescence and young adulthoo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5(3), pp.695-708.

- Pelham, B. W., Swann, W. B., Jr. (1989). From self-conceptions to self-worth: On the sources and structure of global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4), pp.672-680.
- Pyszczynski, T., Greenberg, J., Solomon, S., Arndt, J., Schimel, J. (2004). Why do people need self-esteem? A theoretical and empirical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30(3), pp.435-468.
- Robins, R. W., Trzesniewski, K. H. (2005). Self-esteem development across the lifespan.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4(3), pp.158-162.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hahar, G., Davidson, L. (2003). Depressive symptoms erode self-esteem in severe mental illness: A three-wave, cross-lagged stud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1(5), pp.890-900.
- Shamir, B. (1986). Self-esteem and the psychological impact of unemployment,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9(1), pp.61-72.
- Sheeran, P., Abrams, D., Orbell, S. (1995). Unemployment, self-esteem, and depression: A social comparison theory approach.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17(1-2), pp.65-82.
- Tennen, H., Herzberger, S. (1987). Depression, self-esteem, and the absence of self-protective attributional bias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1), pp.72-80.
- Tiggemann, M., Winefield, A. H. (1984). The effects of unemployment on the mood, self-esteem, locus of control, and depressive affect of school-leavers. *Journal of occupational Psychology*, 57(1), pp.33-42.
- Turner, J. C., Hogg, M. A., Oakes, P. J., Reicher, S. D., Wetherell, M. S. (1987). Rediscovering the Social Group: A Self-categorization Theory. *Contemporary Sociology*, 18(4), pp.645-646.
- Van Houtte, M. (2005). Global self-esteem in technical/vocational versus general secondary school tracks: A matter of gender?. *Sex Roles*, 53(9-10), pp.753-761.

Effects of Job Loss on Self-esteem: Focusing on Gender Difference

Jeong, Eunseok

(Seoul National University)

Kahng, Sang Kyoung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vious research indicates that self-esteem tends to vary by both gender and employment status. As few studies empirically tested the relationships between job loss and self-esteem, however, little is known about the effects of job loss on self-esteem. Much less is known about whether the effects of job loss on self-esteem vary by gender. In order to address the gaps in previous research, the current study aims to examine whether the effects of job loss on self-esteem vary by gender through testing (1) whether self-esteem varies by gender, (2) whether the effect of job loss on self-esteem is significant, and (3) whether the effects of job loss on self-esteem vary by gender. We used data from both 7th and 8th waves of the Korean Welfare Panel Study. Sample consists of 5,387(males: 3,044 and females: 2,343) individuals in labor force population as of 7th wave. Controlling for self-esteem in Wave 7, regression analyses were done not only to examine the main effects of both gender and job loss but also the interaction effects between gender and job loss on self-esteem in Wave 8.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Females presented higher levels of self-esteem than males. (2) Those who were continuously employed presented higher levels of self-esteem than those who lost their jobs. (3) The effects of job loss on self-esteem varied by gender, indicating males who lost their jobs presented much lower levels of self-esteem than their female counterparts. Based on these findings, implicat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are discussed.

Keywords: Self-esteem, Job Loss, Gender Difference, Social Comparison Theory, Gender Roles